

完工될 마량항 地域發展에 큰 寄與

颱風期이전 主要工程마무리

懇談會등으로 技術向上 도모

金 炯 寅(水産廳 南海漁港事務所長)

우리 나라 남해안은 지형 지세와 해양 환경이 어업 생산에 유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연안 어업의 중심지이며, 특히 다도해로서 파랑을 막아주는 많은 도서가 밀집되어 양식 어업은 물론 어선 어업도 동·서해안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어업 인구, 어선 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업 생산 즉 소득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어업 생산 시설을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수산업 활동과 유통 기지로서 어촌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항도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또한 그 개별 수요도 막대하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 규모가

미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어촌 생활 환경 열악으로 공업화 진전과 함께 이어(移漁)현상 증가에 따른 어업인구 감소, 어선의 노령화 등으로 어촌은 날로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그에따라 수산업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이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수산업이 수지맞는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의욕과 능력 있는 노동력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업 기반 시설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어촌도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이 어항 건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남해어항사무소는 전남, 경남 일원과 제주도를 포함하여 35개

관할 어항 중 92년도에는 240여억원으로 연차 시설 계획에 의거, 전남 여수 소재 국동항, 경남 거제 소재 지세포항, 제주 남제주 위미항 등 21개항에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 국동 어항은 물양장 1,904m, 파제제 250m, 돌제 460m, 인근 도서민의 내왕 편의를 위한 도선장 등 모든 시설을 완성함으로써, 성어기 30톤급 1,500여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남해안 굴지의 수산업 전용 종합 어항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올해도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은 지속적으로 투자, 기본 시설을 완성해 나가고 이와 연계되는 기능 시설도 병행시켜 완벽한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미 기본 시설은 완공되었으나 일부 시설이 남아있는 어항의 미진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어항 이용도 제고는 물론 태·폭풍 등의 자연 재해시 피해 확산을 방지토록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완공항 가운데는 오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여건의 변동이나 항세 신장 등으로 이미 완성된 시설로는 어항의 제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부족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도 꾸준히 보강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90년도에 지정 고시된 관내 신규 8개 어항은 이미 전문 기술 용역단의 조사를 거쳐 개발 타당성과 기본 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2차년도에 걸쳐 투자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부대 시설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는 조기 완공을 목표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도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산청의 어항 개발 투자 기본 방향에 따라 93년도 남해 어항사무소에서 진행할 어항

건설 시설 규모는 총 19개항에 244억 6,0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면 연차 개발하는 물건항 등 수축 사업 15개항, 미진 시설을 남겨두고 투자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재투자하는 미조항 등 2개 어항, 구조물의 노후 취약으로 보수가 요망되는 안도항 등 유지 보강 2개항 등 19개항에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그 중 강진군 소재 마량항은 방파제 790m, 물양장 460m 등 전 시설이 급년에 완공되어 어선 어업의 중심지는 물론 금일도, 생일도 등 인근 도서 지방과 육지 내왕의 관문항으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90년도에 신규 지정은 하였으나 개발에 필요한 기본 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전남도 관내 풍남(고흥) 초도(여천) 득암(완도)항과 경남도 관내 삼덕, 매물도(통영), 광암(창원)항 등 6개항은 92년도에 항만 전문 기술단으로 하여금 지세, 항세, 해양조건, 수산업 현황 등 개발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시설 계획을 수립토록 수산청에서 이미 용역 과업을 추진중이므로 동 과업이 완성되어 투자와 연계되면

어항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전될 것이다.

어항을 개발하고 그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어항사무소가 발족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투자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급급하였고, 어항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는 법적 체계가 미흡하여 관리 효율을 기할 수 없었으며 또한 이용자 단체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관리를 전담케 함으로

'93년 어항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항 명	예 산
계	19 개 항	24,461
수축사업	15 개 항	21,061
	마 량	1,961
	녹 동	2,500
	여 서	900
	사 동	500
	내 발	500
	시 산	500
	낭 도	200
	물 건	3,500
	육 지	3,000
	지 세 포	2,000
	다대다포	500
	매 물 도	200
위 미	2,200	
도 두	2,100	
김 녕	500	
재 투자	2 개 항	1,800
	소 안	1,000
유지보강	미 조	800
	2 개 항	1,600
	안 도	1,000
	능 양	600

써 더욱 더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당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산청에서는 우선 어항법을 개정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어항 시설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어항사무소에서는 그 지침에 의거 매 분기 별로 어항 관리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항 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으로 시설과 병행하여 관리 운용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요 어항에 어항 감시 청원 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어항 시설의 무

단 점유, 훼손 등 불법 행위

가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항 환경 정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어민과 함께 공영하는 보다 쾌적한 어항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함께 올해의 항별 세부 집행 계획에서 설계, 계약 착공 등 3 단계 과정에서 태풍 진로권 어항의 우선 설계와 조기 착공으로 태풍기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시공 중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나머지 주요 어항에 대하여는 수축, 보수 보강으로 구분, 예산 규모에 따른 공사 수행 기간을 감안하여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이밖에도 어항 공사 관리에 보다 노력을 경주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현장 책임 기술자 간담회 등을 통한 기술 지도 감독에 정진하며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한층 더 힘 쓸 것이다.

그리고 시공 도중 또는 완공 된 항에 대한 보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은 수시로 본청에 건의하여 어항 이용도 제고 및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일선 집행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㉔

西·海·漁·港·事·務·所

모항·홍원·말도·수품항 投資지속

豫算적지만 堅實施工에 最善

격포·서망항에 請願警察배치

李 雋 浩<水産廳 西海漁港事務所長>

최근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

들은 어항 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항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